

허균 시에 투영된 사유와 정서의 특징

박영주*

<차례>

- I. 접근의 시각
- II. 강렬한 주체성의 현현
- III. 경험적 진실성의 형상화
- IV. 욕망과 정감의 자유로운 발로
- V. 맺음말

I. 접근의 시각

교산 허균(蛟山 許筠, 1569 ~ 1618 : 선조2 ~ 광해군10)은 다방면의 출중한 재능 만큼이나 다채로운 행적을 남긴 인물이다. 유가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규범이 일상의 삶을 완강하게 틀지우던 조선중기에, 당대로서는 예사롭게 생각할 수 없었던 사상과 정서와 행동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적인 삶과 문학세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도록 시대의 반항아·이단자로 일컬어지는가 하면, 시대의 굴레를 벗어나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선각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 강릉대학교

교산이 태어나 성장·활동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중세의 지배질서 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변혁의 움직임이 움트던 시대였다. 격화된 당쟁과 치욕적인 임진왜란에 이어 광해군 즉위를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민생이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특히 중하층에서 변혁을 갈망하는 기운이 점차 확산되고 있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교산은 다방면의 서적들을 섭렵하며 생각을 넓히고 감성을 담금질해 나가면서, 당시로서는 선뜻 내보이기 어려운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키워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교산은 17살에 초시, 21살에 생원시, 그리고 마침내 26살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 벼슬살이를 시작한 이후, 주로 중앙의 관직보다는 지방의 관아를 옮겨다니며 경국제민(經國濟民)의 뜻을 폈다.¹⁾ 그는 박학다식하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서조차도 분명하게 인정을 받은 반면, 당대 사회질서와 가치의식에 결부된 면에서는 극단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예사였다. “허균은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와 모든 서적을 두루 탐독하였으므로 글을 잘 하였다. 다만 사람됨이 경망스러워 볼 만한 것이 없다.”²⁾라고 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나, 그 스스로 “어릴 때부터 찬찬하지 못하고 부형이나 스승의 훈도가 모자라 예법 있는 행동이 없게 되었다.”³⁾라고 한 데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교산의 사고방식과 행동거지는 파격적인 면이 있었고, 따라

1) 교산의 연보는 이이화, 『허균의 생각』(뿌리깊은나무, 1980) ; 허경진, 『평전 허균』(평민사, 1984) ; 장정룡, 『허균과 강릉』(강릉시, 1998)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朝鮮王朝實錄』 宣祖 31년(1598) 10월 13일 : “許筠, 賦性聰慧, 博通群書, 長於詞章, 但爲人輕妄, 無足觀者.”

3) 許筠, <閑情錄序>, 『惺所覆瓿藁』 卷5 文部2 : “少跣跹, 乏父師訓長, 爲無町畦之行.”

서 정치집단 간의 알력과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크고 작은 격랑이 끊이지 않았던 당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는 출사와 파직의 파란만장한 벼슬살이를 했다. 그러나 술한 탄핵과 파직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하여 벼슬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박학다식에 문학적 재능이 출중했고 그것을 당대 사회에서 두루 인정받았던 데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교산은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부심한 유가 사대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사대부 사회에서 이단시하던 도가사상에 탐닉하는 것은 물론,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한때 불도(佛徒)를 자처한 적도 있다.⁴⁾ 특히 불가의 경전을 탐독하고 승불의례까지를 일삼는다는 탄핵을 받아 몇 차례 파직되기도 했다.⁵⁾ 그리고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 때마침 포교활동을 하고 있던 천주교 선교사에게서 그들의 지도와 계(偈) 12장을 가지고 오기도 했으며,⁶⁾ 역시 이단시하던 양명학(陽明學)에도 나름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⁷⁾

그런가 하면, 그 자신 정통 사대부가 출신의 적자(嫡子)면서도 서열(庶孽) 출신인 이달(李達)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삼고 시를 배웠으며, <호민론(豪民論)>·<유재론(遺才論)> 등 지극히 선진적인 사고를

4) 교산은 <산으로 돌아가는 중 해안을 전송한 서>라는 글에서, “그대가 불도지만 나 또한 불교를 좋아하오. 일찍이 불경을 읽으면 환하게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는데……내 비록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와 나는 똑같은 불도라오.”(<送釋海眼還山序>, 『惺所覆韻藁』 卷5 文部2 : “海眼竺教人也, 吾亦好竺教. 嘗讀其書 郎然有悟於心……雖不髡不伽梨, 而眼及余同是釋徒也.”)라고 하기도 했다.

5) 37살(1605·선조 38년) 때 수안군수에서 파직된 것, 39살(1607·선조 41년) 때 삼척부사에서 파직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6) 교산이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에 대해서는 유몽인의 『어우집』을 위시하여,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박지원의 『연암집』 등 실학자들의 문집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7) 교산이 양명학에도 나름의 관심을 가졌다는 언급은 김진세, 『허균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89), 307면을 참조.

답은 글을 통해서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개혁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또한 서얼들과 자주 사귀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⁸⁾ 기생들과 어울려 놀기를 주저하지 않은 데다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은거생활을 꿈꾸고 한동안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다.⁹⁾

이렇듯 교산이라는 인물은 쉽게 틀지우기 어려운 복합적 성향을 지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 보면, 그 모든 복합성의 밑바닥에는 그 자신 분방한 사유와 정서의 소유자로서,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구애되지 않는 그만의 개성적인 삶을 살고자 한 가치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복합적 인간상의 밑바닥에 흐르는 사유와 정서의 분방성이야말로, 교산이라는 인물됨됨이와 문학적 특질 및 그가 그려나간 삶의 역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이해의 시각을 바탕으로 교산의 시편들에 투영되어 있는 분방한 사유와 정서의 특질을 구명함으로써, 그의 기질과 품성 및 시세계의 두드러진 특성을 규명하고, 이같은 교산 시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와 평가의 일단을 아우르고자 한다. 교산의 시세계는 그가 견지했던 사상과 더불어 그 동안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¹⁰⁾ 그의 인간상과 문학적 특질 및 삶의

8) 39살(1607·선조 40년) 때 공주목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목사직에서 파직되기까지의 기간에 서양갑, 이재영 등 후에 칠서(七庶)의 난(1613·광해군 5년)을 일으킨 주동자들과 교류하고 후원을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교산은 서얼들과 자주 어울려 인륜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자주 탄핵을 받기도 하고, 칠서의 난 배후 혐의를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9) 31살(1599·선조 32년)에 황해도 도사로 재직할 때, 서울 기생을 데리고 와서 살고 관아에 집을 설치했으며 무뢰배들이 드나들게 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기도 했으며, 40살(1608·선조 41년) 때 충청도 암행어사의 계에 의해 성품이 경박하고 품행이 무절제하다 하여 공주목사에서 파직된 후, 부안의 골짜기에 있는 정사암(靜思菴)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은거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이 그 예다. 은거생활을 할 때, 그는 부안 바닷가에 전담과 가택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부안의 명기 계생(桂生) 즉 매창(梅窓)과 다시 사귀기도 했다.

역정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거점을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10) 교산의 시세계를 구명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안병학, 『허균의 시세계와 자아의식』, 『한국한문학연구』 5집(한국한문학회, 1981) ; 김신중, 『허균의 시론 연구』(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 ; 허경진, 『허균 시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4) ; 김태식, 『허균 문학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박미선, 『허균 시학 연구—성수시화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이동진, 『허균의 여유시 연구』(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최우영, 『허균의 시관과 비평양상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하미현, 『허균 시론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전정덕, 『허균의 한시 연구』(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3) 등을 들 수 있다.

II. 강렬한 주체성의 현현

교산은 후세에 <홍길동전>의 작자로 회자되며 우리 문학사의 한 봉우리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가 활동하던 당대에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탁월한 시인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시평론집 『학산초담(鶴山樵談)』을 지었는데 하면, 34살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활동했고, 43살에는 신라로부터 조선에 걸친 역대 시인들의 시를 가려 뽑아 논평한 시화집 『성수시화(惺叟詩話)』를 편찬했다. 그리고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 전인 43살에 이미 자신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64권(현재 26권만 전함)을 손수 편찬하여 후손에게 전하기도 했다.¹¹⁾ 이론과 실재를 겸한 그의 출중한 시재(詩才)를 넘겨 헤아릴 수 있는 사실들이다. 그리하여 이같은 시재에다 고금에 해박한 식견과 명민한 품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교산은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차례 중국에 사신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그의 시적 재능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경박하다거나 인륜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여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으레 따라다녔다. 이같은 평가는 당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이들이 교산을 폄하할 때 자주 들먹거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엄숙과 품위를 숭상하던 당대 유가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격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적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그의 벼슬살이가 파란만장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그는 자신의 이런 점에 대해 ‘세상과 화합하지 못해서[不與世合]’라는 말로 합축했다.

나는 성격이 소탈하고 호탕하여 세상과는 잘 맞지 않으므로, 시속 사람들이

11) 『학산초담』·『성수시화』·『성소부부고』의 해제와 교산의 문집 전승 내력에 대해서는 장정룡, 앞의 『허균과 강릉』, 123~131면 참조.

무리를 지어 꾸짖고 떼지어 배척하므로, 문전에 찾아오는 이가 없고 나가도 더 붙어 뜻에 맞는 곳이 없다. ……은 세상이 나를 비루하게 여기고 사귀지 않으니 내가 어디로 가서 벗을 구할 것인가. 마지 못해 옛사람 중에서 사귄 만한 이를 가려 벗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¹²⁾

자신의 품성이 세상과 맞지 않는 데다 시속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일쑤여서, 옛사람 중에서 벗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같은 시속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 교산은 <좋은 계책[良策]>이라는 시에서 “모략 속에 빠가 이미 녹아버렸네.”¹³⁾라고 읊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가 찾은 벗은 도연명, 이태백, 소동파다. 이들은 모두 문장으로 누대에 이름을 빛냈을 뿐 아니라, 세속에 초연하여 자연과 함께 자유분방한 생애를 보냈던 인물들이다. 교산은 거처에 이들의 초상을 그려놓고 분향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사우(四友)’로 칭하기도 했다. 세속의 예교(禮敎)를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했던 교산으로서는 그래서 문학이 자신의 삶에 절실히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진 <파직 소식을 듣고서[聞罷官作]>는 이같은 지향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聞罷官作>¹⁴⁾ <파직 소식을 듣고서>

久讀修多教 오랫동안 불경을 읽어온 것은
因無所住心 내 마음 머물 곳 없어서였네.
周妻猶未遣 여지껏 아내를 내보내지 못한 데다가
何肉更難禁 고기를 금하기는 더욱 어려웁다네.

12) <四友齋記>, 『惺所覆瓿藁』卷6 文部3: “許子, 性踈誕, 不與世合, 時之人, 群譽而衆斥之, 門無來者, 出無與適……舉世而鄙我不交, 吾焉往而求友哉. 無已則於古人中, 擇其可交者友之.”

13) <良策>, 『惺所覆瓿藁』卷1 詩部1: “譏讒骨已鎖.”

14) 『惺所覆瓿藁』卷2 詩部2

已分青雲隔 내 분수 벼슬과는 벌써 멀어졌거늘
寧愁白簡侵 파면장이 왔다고 내 어찌 근심하리.
人生且安命 인생은 또한 천명에 따라 편히 사는 것
歸夢尙祇林 돌아가 부처 섬길 꿈이나 꾸려네.

禮教寧拘放 예교가 어찌 나의 자유로움을 구속하리오
浮沈只任情 뜨고 잠기는 일 다만 정에 맡겨 하리라.
吾自達吾生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親友來相慰 친한 벗들이 찾아와 서로 위로하고
妻孥意不平 아내와 자식은 언짢은 마음을 품었건만,
歡然若有得 나는 외려 좋은 일 생긴 듯 즐거워하니
李杜幸齊名 이백·두보처럼 이름 나란히 들지도.

교산이 불교를 숭상한다 하여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입고 마침내 삼척부사에서 파직을 당한 39살(1607·선조 40년 5월) 때 지은 작품이다. 당대 지배이념이던 성리학의 예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한 이들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타고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렬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파면장[白簡]’ 같은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시속의 예교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둘 곳을 찾아 분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할 뿐이었다. 벼슬살이 상황이든 물러나 산림에 묻혀 지내는 처지든, 다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에 맡겨 살고자 하는 자신임을 분명하게 표방하면서, 그렇기에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지키고,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겠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롭게 시나 지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희구하는 바임을 의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 ‘이백·두보처럼 이름 나란히 들지도[李杜幸齊名]’와 관련하여, 이 작품 말미에 “이때 사헌부에서 광공 재우는 도교를 숭상하고 나는 불교를 숭상한다 하여 아울러 탄핵하였으며,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다고 장계를 올려 파직하였다. 그래서 결구에 언급한 것이다.”¹⁵⁾라고 부연해 놓았다. 따라서 이 구절은 광재우와 같은 명공과 함께 이단으로 나란히 이름이 거론되며 파직당함은, 이백과 두보의 이름이 나란히 거론되는 것처럼 오히려 영광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결구의 표현 속에는 조정의 처사를 비꼬는 풍자적 의미까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산의 태도는 당대 사회와 윤리에 대한 정면도전이었으며, 자신의 기질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투영이다. 나아가 ‘나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는 이러한 의지의 저변에는 확고한 자아인식과 강렬한 주체성이 깔려 있다. 교산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남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 머뭇거리지고, 권세 있는 집 대문에 이르면 걸음이 갑자기 달라붙고, 높은 사람에게 절하려면 기둥이 몸에 붙은 것같이 뻗뻗해진다.”¹⁶⁾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이야말로 오만에 가까운 자부심이자 강렬한 주체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작품에서 “꾸지람과 쫓아냄이 어찌 그리도 분분한지, 벼슬이야 뻗길망정 기개 어찌 뻗길손가.”¹⁷⁾라고 읊기도 했다. 그런 교산이었기에 예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했던 그에게는 문학이 유일한 즐거움이요 구원이었다. 현실에서 오는 불화와 갈등의 체험을 시화(詩化)하는 일이야말로 그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이자 절실한 필요였기 때문이다.

<余以病火動不克燕行竣譴巡軍 >내가 화가 동하는 병 때문에 중국에 사신갈

15) “時憲府，以郭公再祐尙道教，以僕崇佛教，並劾之，爲闕異端啓罷。故結句及之。”
 16) <對詰者>，『惺所覆瓿藁』卷12 文部9：“談及譽人，口卽囁嚅，足躡權門，其跟卒瘁，軒裳拱揖，如柱在軀。”
 17) <余以病火動不克燕行竣譴巡軍作長句贈奇獻甫以抒懷>，『惺所覆瓿藁』卷2 詩部2：“譴訶斥逐何紛紜，官則可奪氣肯奪。”

作長句贈奇獻甫以抒懷¹⁸⁾ 수 없으므로 순군에서 견책을 기다리며 길게
지어 기현보에게 주며 심회를 펴다>

未害從俗且浮沈 시속 따라 뜨고 가라앉음도 해로운 건 아니거니
莫恨世上少知音 한 세상에 알아 주는 사람 없다 한탄을 마소.
高文自足映千代 높은 문장 스스로 천추에 빛나리니
群兒謗傷相從侵 못 소인배 중상 비방 서로 침해 입으리라.

시속의 용납 여부에 따라 뜨거나 가라앉는 삶을 사는 것도 그다지
해로울 게 없다고 하면서, 그런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
달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에게는 천추에 빛날 문장
- 시가 있으니, 중상과 비방을 일삼는 못 소인배들이야 결국 그들
끼리 침해를 입을 터, 문장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즐기며 그 나름의
한 평생을 보내는 것도 값진 인생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렇듯 교산의 시 가운데에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일상의 생활현
실에서 재료를 취하여, 그때그때의 감정을 스스로 없이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다. 벼슬살이의 곡절이나 사회활동에 결부된 일들은 물론,
남녀의 본능적이고 소박한 애정, 가족을 그리는 애뜻한 정, 떠
도는 신세에 대한 고독과 탄식 등 생활의식에 충실한 작품들을 많
이 남긴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와 같은 작품들 대부분에는 확고한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산 특유의 강렬한 주체성이 짙게 배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호민론><유재론>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산
문에서 볼 수 있는 사회개혁의 혁신적 면모와는 꺾이나 대조되는
것이면서, 일상의 삶에 충실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여실히 살필
수 있는 또다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18) 『惺所覆瓿藁』卷2 詩部2

Ⅲ. 경험적 진실성의 형상화

전통시대 선비사회에서 시 짓는 일은 필수교양이자 생활의 일부였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단한 일들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갖게 되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시를 지어 표출하는 것은 선비로서 당연한 요건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산이 평생 시나 지으며 살겠다는 것은 특별히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삶 속에서 ‘자기대로의 인생’을 절실하게 추구하게 된 사고방식과 가치의식의 저변이며, 자신의 문학행위에 대해 예사 사대부들과는 각별히 다른 생각과 깊이를 지녔다는 데 있다.

조동일은 곡절과 부침이 심했던 교산의 삶과 행적을 그의 문학과 결부시켜, “교산은 자기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다. 그의 문학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거나 행동의 규범을 탐구하는 문학이 아니었고, 자기대로 세계와 부딪힌 경험의 표현이다.”¹⁹⁾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대로 세계와 부딪힌 경험의 표현’은 곧 앞에서 논의한 강렬한 주체성의 현현이자 교산이 추구한 시적 지향의식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향의식과 관련하여 교산은, “내가 원하는 바는 답습하지 않고 일가를 이루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남의 집 아래에다 또 하나의 집을 짓듯이 남의 문장을 답습하여 표절했다는 꾸지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²⁰⁾ “나는 나의 시가 당시(唐詩)와 비슷하다느니 송시(宋詩)와 비슷하다느니 하게 될까 두렵고, 오직 사람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게 하고 싶다.”²¹⁾라고 하였다. 그의 작시 태도와 작품을 통해 도

19) 조동일, 「허균」, 『한국문학사상사론』(지식산업사, 1978), 170~171면.

20) <文說>, 『惺所覆韻藁』卷12 文部9 : “不相蹈襲, 各成一家, 僕之所願, 願學此焉, 恥向人屋下架屋, 蹈窺釣之諺也.”

21) <與李蓀谷>, 『惺所覆韻藁』卷21 文部18 : “吾則懼, 其似唐似宋, 而欲人曰, 許子之詩

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실히 나타나 있는 발언이다.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는 732편에 이르는데,²²⁾ 편편이 주옥같은 명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의 개성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出郊>²³⁾ <교외에 나가>

秋熟郊原喜	가을 무르익어 들판이 즐거우니
歡聲遠近聞	기쁜 웃음소리 예서제서 들려오네.
家家傾白酒	집집마다 막걸리를 기울이고요
處處割黃雲	곳곳마다 누른 벼를 베어 들이네.
可笑無田客	우습기만 하구나 밭도 없는 이 나그네
空書乞米文	부질없이 쌀 꾸러는 편지나 쓰네.
城東借三畝	성 동쪽에 세 이랑 밭땀기 빌려
何日事耕耘	언제 쪼에나 밭 갈고 김매볼거나.

벼슬살이에 고달픈 어느 날 잠시 교외로 나갔던 듯싶다.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그것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경쾌한 리듬감에 실려 전해 온다. 실제 생산에 종사하는 그들이야말로 천하의 근본임을 새삼 실감케 하기에, 그들을 바라보는 교산의 따뜻한 눈길과 훈훈한 정감이 행간에 넘쳐난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부질없이 쌀 꾸러는 편지나 쓰는’ 자신-관료 벼슬아치의 고달픈 일상이 쓴 웃음을

也.”

22) 허경진의 연구에 따르면, 교산의 한시는 문집 『성소부부고』에 실려 전하는 작품 732편과 문집 밖에 실려 전하는 작품 21편을 합해 753편이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4편은 잘못 끼어들었기에 실제로 전하는 작품은 총 749편이라고 한다(허경진, 앞의 『허균 시 연구』, 23~24면 참조).

23) 『惺所覆瓿藁』卷1 詩部1.

짓게 한다. 그래서 차라리 ‘세 이랑 발똥기 빌려’ 건강한 저들의 웃음에 동참하는 것이 실로 나은 삶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담담하게 되새긴다.

교산은 그의 시가 “자신이 경험한 진실한 체험과 개성의 표현이기를 바랐으며, 시의 수사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의 독창적인 표현을 강조”²⁴⁾하였다. 그런 면에서 그가 시의 모범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풍부한 정감이 짙게 배어나는 당시였다.

시가 송에 이르러서는 망했다고 할 만하다. 망했다는 것은 시의 언어가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참된 이치가 망했다는 것이다. 시의 이치는 표현을 세밀하게 한다거나 말이 완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치고 뜻이 이어지는 데 있다. 가까운 것을 가리켜 먼 것을 나타내고, 이치의 길에는 들어서지 않으며, 말이라는 수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경지다.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도 이따금씩 이런 경지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송대의 작가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가 뜻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고, 고사의 인용에 힘을 기울이며, 어렵게 운자를 맞추느라 애써서 스스로 시의 품격을 상하게 하면서도, 그러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²⁵⁾

시의 이치에 견주어 볼 때 당시가 거기에 가장 가깝다고 했다. 교산에게 있어서 시는 정(情) 그 자체를 표현하면서, 정(情)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시는 철저하게 정감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는 바로 이런 정감의 세계를 노래한 경우가 많다고 보아 그의 시적 지향의식의 핵심을 이루

24) 김영, 「중세 권위주의에 저항한 문인-교산 허균」, 『한국고전문학작가론』(소명출판, 1998), 320면.

25) <宋五家詩鈔序>, 『惺所覆瓿藁』 卷4 文部1: “詩至於宋可謂亡矣. 所謂亡者, 非其言之亡也, 其理之亡也. 詩之理, 不在於詳盡婉曲, 而在於辭絕意續, 指近趣遠, 不涉理路, 不樂言筌, 爲最上. 乘唐人之詩, 往往近之矣. 宋代作者不爲不少, 俱好盡意, 而務引事, 且以險韻窘押, 自傷其格殊不知.”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다른 이의 작품을 평할 때에도 당시의 성향과 풍격을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산의 시적 지향의식은 ‘모두가 뜻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고, 고사의 인용에 힘을 기울이며, 어렵게 운자를 맞추느라 애써서 스스로 시의 품격을 상하게 하면서도, 그러는 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한 대목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조선전기에 가장 오랫동안 문형(文衡)의 자리에 있었으며 관인문학의 거두이기도 했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시에서 답습하지 않는 경우란 옛 사람들이 어렵게 여긴 바다. ……옛 사람들이 시를 지움에 있어서 한 구절도 유래처가 없는 것이 없다.”²⁶⁾라고 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교산은 시가 개성적이기 위해서는 생활현실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달리 말하면, 시인은 자신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시각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 진실성에 입각하여 노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寓懷>²⁷⁾

<생각을 부쳐>

田畝略拋荒	밭이랑은 거의가 다 묵어버리고
人民半死亡	백성들은 절반이 다 죽어버렸네.
征徭仍聚斂	부세는 여전히 거둬들여야 하는데
水旱更蟲蝗	수재 한재에 황충이까지 들끓어라.
政豈推高弟	정사로 어찌 뛰어난 솜씨 뽑내라
情還憶故鄉	마음은 도리어 고향만 그리네.
空慙二千石	한갓되이 고을 수령 부끄러우니

26) 徐居正, <東文選序>, 『東文選』·上: “詩不蹈襲, 古人所難……古人作詩, 無一句, 無來處.”

27) 『惺所覆韻藁』卷1 詩部1

不逮漢循良 옛날의 어진 수령 발치에도 못미치리.

교산의 나이 30대 초반, 황해도 수안에서 고을 수령을 하던 때의 작품이다. 전란[임진왜란]으로 온통 황폐화된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거기에다 수재와 가뭄에 병충해까지 겹쳐 민생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듯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수령이랍시고 국법에 따라 부세를 거두어 들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참담하기만 하다. 한갓 관료의 능력이나 수완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에, 참담하다 못해 녹봉을 받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옛날의 어진 수령들은 이럴 때 어떻게 정사를 폈는지, 그 능력이 정작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자신을 돌아보며 탄식을 한다.

이런 교산이기에, 그는 다른 이의 시를 평하는 자리에서 인생살이의 간난신고를 겪어보아야 비로소 일정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렇기에 문장이란 부귀영화에 있지 않고, 험난하고 어려운 경험을 쌓고, 강호자연의 도움을 얻은 후에라야 오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²⁸⁾라고 했다. 독서를 통한 인격수양이나 지식의 공교함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활현실의 직접적인 경험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이다. 자신만의 정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시세계를 펴고자 할 때에는 의당 절절한 인생 체험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야 개성적인 시어를 구사할 수 있을 터기 때문이다.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경험적 진실성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교산의 이와 같은 가치의식과 시적 지향의지의 단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당대의 사회현실을 가감 없이 바라보고, 그 구체적인 형상을

28) 『惺叟詩話』, 『惺所覆韻藻』 卷25 說部4 : “乃知文章, 不在於富貴榮耀, 而經歷險艱, 得江上之助, 然後可以入妙.”

사실적으로 그려내려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당대 현실의 비리와 모순을 직시하면서, 이를 지배계층의 양심적 시선을 통해 노래한 작품들을 적잖게 남겼다. 곤궁한 민초들의 삶을 헤집고 부숴뜨리며 가렴주구를 일삼는 관가의 횡포와 함께 애민의식이 행간에 담담하게 배어 있는 다음과 작품이 그 예다.

<步工部懷古>²⁹⁾ <두보의 회고시 운을 따라 짓다>

翁跪籬間吏叫門	울밑에 노인 꿇자 문간에 관리 고향
拾遺詩裡石壕村	두보 시 속의 석호 마을 같구나.
官家納稅時雖迫	관가에 세금낼 날 바로 앞에 닥쳤으나
老婦啼飢眼已昏	늙은 아낙 주림에 지쳐 눈이 하마 어두웠네.
聚鐵只堪成一錯	쇠붙이 모아 봐야 일착이나 될까 말까
抄兵終亦作孤魂	뽑혀나간 병사 끝내 외로운 혼백이 되고 마네.
誅求不厭民生困	인생이 고달과도 가렴주구 끝없으니
觸目端憂詎可論	눈에 띄는 시름거리 어찌 다 말로 하리.

가뜩이나 궁핍한데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관리의 재촉과 고향소리가 동네를 찌렁찌렁 울린다. 주림에 지친 늙은 아낙의 썩한 표정에서 삶의 고통이 절절이 배어난다. 병장기를 만드느라 쇠붙이를 모두 거두어 가서, 다시 모은다고 내놔 봐야 작은 술단지 하나를 만들까 말까다. 게다가 징병되어 전쟁에 나간 이들은 끝내 혼백이 되고 만다. 고달픈 살림살이에 시름만 겹겹이 쌓여가는데, 관가의 가렴주구는 말로 다 이를 수 없으리만치 나날이 혹독하다. 현실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시화한 교산의 시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듯 교산의 시선은 하층의 피지배계층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다. 임진왜란(1592~1598)이라는 엄청난 민족적 위기의 시대를 겪으며 살았던 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 현실의 모순과 부

29) 『惺所覆瓿藁』附錄 蛟山臆記詩

조리를 다만 방관자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기에는 스스로의 양심이 용납지 않은 뿌리깊은 민본주의자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다단한 삶의 국면들에 눈길을 돌리고, 이를 경험적 진실성에 입각하여 형상화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교산의 시적 지향의식은 궁극적으로는 시가지녀야 개성과 정감의 문제에 닿아 있으며, 그 지향의식의 저변에는 이를 추구해 나갈 확고한 자아인식과 강렬한 주체성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산의 분방한 사유와 정서는 비단 문학적 국면에만 한정되었거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민본사상에 바탕을 두고서 내정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정치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역설한 <정론(政論)>·<관론(官論)>·<호민론(豪民論)> 등과, 이를 위해서는 신분차별을 타파하여 출신성분에 상관 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유재론(遺才論)> 등, 그의 다양한 논(論)들을 통해 펼쳐 보인 개혁과 혁명정신이 돋보이는 글들 또한 그가 문학에서 견지한 사유 및 정서와도 일맥상통한다.

요컨대 다채로운 시와 논들을 통해 펼쳐 보인 교산의 이와 같은 면모들은, 그가 당대 규범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은 분방한 사유와 정서의 소유자였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교산이라는 인물이 관념적 주장만을 장황하게 내세운 이론가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대안까지를 제시한 실천적 지식인이었음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IV. 욕망과 정감의 자유로운 발로

사유와 정서의 분방성은 시인이라면 으레 지녀야 할 자질인지도 모른다. 시인의 생명은 풍부한 감수성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개성적으로 표출하자면 무엇보다도 분방한 사유와 정서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을 지을 수 있겠으며, 기억할 만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

예컨대, 우리 문학사에서 탁월한 시인으로 손꼽아 손색이 없는 15세기의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金時習, 1435~1493)이나 16세기의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역시 누구보다도 풍부한 감수성을 지녔으며, 그들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사유와 정서의 분방성 역시 두드러진다.

매월당의 경우, 재야를 떠돌며 우여곡절이 심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사물이며 인간사로부터 철학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결같이 시로써 표출해 낸 시인이다.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면서 가슴 속에 찻찻이 쌓인 심회를 다채로운 감성으로 형상화하였는가 하면, 당대 사회현실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강렬한 어조로 질타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심상을 그의 인생역정만큼이나 자유분방한 사유와 정서로써 노래했다.³⁰⁾

또한 송강의 작품들에는, 얼핏 보기에 한 시인에게서 동시에 나타나기 어려운 이질적인 면모들이 역시 분방한 사고와 정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일상사적 관심과 탈속의 정서가 공존하는가 하면, 경국제민의 이념과 처사적 삶의 흥취가 분방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아울러 활달하고 호방한 품성의 이면에 지극히 섬세하고 애절한 여성적 정감이 넘쳐나기도 하는 것이 그 두드러진 단면들이다.³¹⁾

30) 매월당 시의 특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박영주, 「매월당 김시습의 문학세계」(『반교어문연구』 제12집, 반교어문학회, 2000), 59~85면을 참조.

31) 송강의 한시와 국문시가의 특질에 관한 논의는 박영주,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질」(『한

그런데, 교산의 경우는 그 사유와 정서의 분방성이 유다른 양상을 띤다. 성리학적 사유와 정서가 완강하던 시대에, 인간 본연의 욕망을 당당하게 긍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데까지 이른 점이 그 두드러진 단면이다. 그는 자유분방한 데다가 낭만적 기질의 소유자였다. 예교의 품위로 점잔을 차리기보다는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다.

교산은 절제와 검양을 숭상하며 인간의 욕망을 극도로 억제하는 당대 성리학적 풍토 속에서, 식욕과 성욕을 사람이 타고난 본능적인 욕망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³²⁾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천학문답(天學問答)>에는, 허균이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준 것이요 윤리의 분별은 성인의 가르침이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천품의 본성을 어길 수는 없다.”³³⁾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을 긍정하고 감정해방을 꿈꾸던 교산의 가치의식과 정서의 일단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黃州艷曲>³⁴⁾ <황주 엽정곡>

商人江上去	배타고 장삿길을 떠나가면서
八月以爲期	팔월이면 돌아온다 기약하더니,
重陽今已過	구월이라 구일이 다 지나가고
酒熟爾何遲	담근 술도 익었건만 왜 아니 오지.

『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217~245면을 참조.

32) <屠門大嚼引>, 『惺所覆瓿藁』 卷25 說部4 : “食色性也.”

33) 安鼎福, <天學問答>, 『順菴集』 卷17 : “許筠……倡言曰, 男女情欲天, 分別倫紀聖人之教也, 寧違於聖人, 不敢違天稟之本性也.”

34) 『惺所覆瓿藁』 卷1 詩部1

夜登太虛樓	밤이면 태허루에 올라를 가서
潛邀好門子	남몰래 좋은 사넬 맞이하자니,
却有上尊來	생각잖은 상존이 문득 올라와
誰人教至此	누가 시켜 이곳에 이르렀나네.

장사 떠난 남편이 기약한 날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리워하는 정을 간절히 노래하는가 싶더니,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채울 길 없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기 위해 밤이면 태허루에 올라 서성대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결국 생각잖은 ‘상존(호장)’이 그곳에 올라와 뜻을 이루게 되었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³⁵⁾ 인간의 본능적 감정이자 욕구를 이렇듯 스스로 없이 노래하고 있는 데서, 역시 감정해방을 꿈꾸는 교산의 가치의식과 정서의 단면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위 작품은 황해도 황주에서의 견문을 옮겨놓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작중화자와 작자가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지만, 다음과 같은 작품에 이르면 교산 자신을 작품 속에 직접 노출시키기까지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聽仁伯姬謳>³⁶⁾ <인백 희첩의 노래를 듣고서>

塞曲聲偏壯	변방의 곡조라 소리 자못 장쾌하고
胡姬貌更奇	오랑캐 계집이라 용모 더욱 기이해라.

35) 이 작품은 악부체 시로 인용한 2수 외에 6수가 더 있는 총 8수의 연작시다. 인용한 두 번째 시에 등장하는 ‘上尊’에 대해 ‘上尊 卽戶長吏名也’라는 주가 있어 그가 ‘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에서 “촉나라 성도 비단 찬란도 하여, 나비들이 꽃 사이로 날아다니네. / 하룻밤을 함께 난 선물로 받아, 춤출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네.[璀璨成都錦, 花間蚊蝶飛. 與儂償一宿, 裁作舞時衣.]”라 한 것을 보면, 시 속의 여인은 상존과 더불어 동침을 하고 그 대가로 중국 비단을 선물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36) 『擘所覆瓿藁』卷1 詩部1

清音揚月苦	맑은 목소리 달을 흔들어 괴롭게 하고
逸響度雲遲	빠어난 메아리 구름을 넘어 너울지네.
悽絕思君曲	처절하기 그지 없어라 사미인 가락
悲涼勸酒詞	서글프기 짝이 없구나 장진주 가사.
留君歌至曙	낭군 만류하여 노래로 밤을 지샌다고
遮莫斂愁眉	시름에 찬 나비 눈썹 감추지 말게.

우선 인백(仁伯)은 그의 벗 민희안(閔希顔)인데, 평안도 북쪽 끝 변방 창성(昌城) 출신인 그의 희첩이 송강가사를 아주 잘 불렀다고 한다.³⁷⁾ 거기에다 창성 고을은 오랫동안 여진의 땅이었으므로, 그 희첩은 오랑캐의 피를 받아 얼굴 모습이 남달랐다고 한다.³⁸⁾

벗의 희첩을 끼고 새벽녘까지 노래를 들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작자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그 희첩의 예사롭지 않은 용모에 대한 느낌을 톡 내뱉는가 하면, 그녀의 맑고 장쾌한 성음에 실려 울려 퍼지는 애절한 송강가사의 노랫가락에 취해 빠져들고, 그러면서 벗을 만류해 새벽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욱이 그렇게 벗을 만류해 밤을 지새우니, 희첩으로서는 언제야 그 자리가 끝나 자신의 낭군을 모시고 정을 나눌지 수심어린 빛을 띠는 사실을 던지시 밝히기까지 했다.

구절구절 표현의 묘미와 더불어 낭만적 서정시로서도 손색 없다 하겠는데, 시적 완성도나 품격의 높낮이를 떠나서, 유교의 근엄한 엄숙주의가 완강하던 시대에 이같은 작품을 지으면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 자체가 놀랍기만 하다. 교산의 시적 지향의지와 함께 그가 얼마만큼 당당한 태도의 소유자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예라 하겠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 교산에게 있어서 시는 정(情) 그 자체를 표

37) 『梶所覆韻藁』 소재 작품 제목 아래 이런 사실이 간략히 밝혀져 있다.

38) 허경진, 앞의 『허균』, 201면 참조.

현하면서, 정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시는 철저하게 정감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시가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가치 혹은 사물의 이치를 따져 노래하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사물에 닿아 가슴 속 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흥-정감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시는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이(理)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시는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서(書)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직 시는 천기(天機)를 희롱하고 현조(玄造)를 빼앗을 때에, 신일(神逸)·향량(響亮)·격월(格越)·사연(思淵)하게 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³⁹⁾

시는 ‘이(理)’ 즉 윤리와 같은 관념적 가치를 수반한 이치를 따지거나, ‘서(書)’ 즉 서책을 많이 읽은 독서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 본질을 밝히는 일반론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 이같은 생각은, 사람마다 타고난 정의 자유로운 발로를 강조하고자 한 교산 시론의 핵심을 이룬다. 시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치를 따지거나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천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퍼내는[天機]데, 풍부한 감정의 묘사와 표출[神逸]에, 깊은 울림을 주는 발랄한 리듬감[響亮]에, 품격을 갖춘 강렬한 의지[格越]에, 내면에서 우러나는 생각의 깊이[思淵]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좋은 시로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산의 시론은 인간 감정의 창조적인 활동과 그 분출이 사회제도나 윤리적 규범으로 인해 제약되는 것을 경계한 매우 선진적인 시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산의 시론 속에는 ‘정감의 자유로운 발로야말로 시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나아가 그 정감을 제대로 드러내자면, 생동하는 생활 속의 언어 즉 시정의 우리말로 표현해

39) <石洲少稿序>, 『惺所覆瓿藁』卷4 文部1: “詩有別趣, 非關理也. 詩有別材, 非關書也. 唯其於弄天機, 奪玄造之際, 神逸響亮格越思然爲最上.”

야 하며, 종래의 관습화된 미의식이나 규범적 형상들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연의 거친 감정들까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향하며 지어지고 향유되어야 바람직한가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산의 시론은 그의 사후에 이어진 실학시대에 새롭게 빛을 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문학사의 근대로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동질성이 유지되는 선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산은 정감을 절실하게 드러내자면 상어(常語), 즉 생활 현실에 바탕을 둔, 생활현실에 밀착된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문설(文說)>이라는 글에서 “대체로 상어를 사용해서 글이 이어지고 글자가 순탄하기에, 그것을 읽으면 마치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보는 것과 같이 술술 넘어가서, 해독하는 자나 해독하지 못하는 자를 막론하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니, 고문에 전문인 사람은 과연 이와 같은가?”라고 자신의 시를 평하며 물어온 객에게, 그게 바로 진정한 고문(古文)이며, 누대에 걸쳐 문장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글이란 다름아닌 “그 당시의 상어를 가지고 다듬어서 고상하게 만든 것”일 따름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⁴⁰⁾

이는 시의 언어가 흔히 고문에 등장하는 용어나 이치·도덕 등에 결부된 추상적 관념어를 동원하는 경향이 빈번한데,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만 저마다 또 시대마다 특유하며 개성적인 정감을 절실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학은 시대마다 삶의 여건이나 가치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달라져야 하기에, 자기 시대의 진실한 문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생동하는 현실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자신의 분방한 사유와 정서를 개성적

40) <文說>, 『惺所覆韻藻』 卷12 文部9: “率用常語, 文從字順, 讀之則, 如開口見咽, 毋論解不解者, 輒無礙滯, 業古文者, 果若是乎……率當世之常語, 而彫爲雅.”

으로 시화하려 했던 교산으로서는 당연한 논리인 셈이다.⁴¹⁾

이와 같은 교산의 상어사용의 중요성과 가치의식은 우리말 문학에 대한 관심과 존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는 그의 『성수시화』에서 우리말로 지어진 송강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정송강은 우리말 노래를 잘 지었다. 그의 <사미인곡>과 <권주사>는 모두 맑고 장엄하여 들을 만하다. 달리 생각하는 이들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기도 하지만, 그 뛰어난 문체와 풍류는 덮어둘 수 없는지라, 아끼는 사람들이 꼭 많았다.⁴²⁾

송강의 <사미인곡>과 <장진주사>를 간략하게 평하여, ‘모두 맑고 장엄하여 들을 만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뛰어난 문체와 풍류를 아끼는 사람들이 대대로 많았음을 밝혔다. 여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한 점이란, 아마도 <사미인곡>의 경우 연군의 정이 너무도 애절하기에, 또 <장진주사>의 경우는 허무와 비애감이 뺏속에 스며들 정도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한 교산 자신의 체험은 앞에서 인용한 <인백 희첩의 노래를 듣고서 [聽仁伯姬謳]>에서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시는 개인의 내면적 정서를 표출하는 통로로서 기능해왔다. 그런 가운데 문치주의(文治主義)의 기풍이 확립되고 관료사회가 도래하게 된 시기로부터는, 시의 언어적 기능을 보다 다양하게

41) 이러한 교산의 지향의식과 관련하여 김영, 앞의 「중세 권위주의에 저항한 문인-교산 허균」에서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도덕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구체적 현실과 삶의 체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학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된 언어표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317면)라고 했으며, 그리하여 “정감의 자유로운 발산을 중시하는 개성문학의 시대를 열었다.”(330면)라고 논의했다. 이를 참조하였다.

42) 『惺叟詩話』, 『惺所覆韻藁』卷25 說部4: “鄭松江善作俗謳, 其思美人曲及勸酒辭, 俱清壯可聽. 雖異論者, 斥之爲邪, 而文采風流, 亦不可掩, 比比有惜之者.”

활용하여 입신영달이나 통치의 수단 및 세계관을 정립하는 수단 등으로 그 기능을 확장시켜 왔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나름의 합당한 규범을 마련하고자 했다.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중세 이후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한시를 통해 전개해 왔다.

그런데 조선중기 사대부 문인들에 이르러 ‘문학은 도를 신는 그릇’이라는 ‘문이재도(文以載道)’론이 시대를 풍미하며 문학관의 중심을 이루었다. 문이재도론에 입각한 문인들은 표현 자체보다는 의미와 흥취를 중시하면서, 문학을 자기성찰에 필요한 도구로 삼아 정서를 순화하는 문학을 추구했다. 이러한 문학관은 동아시아 한문문명권 내에서 오래도록 통용되어 온 ‘즐거워하면서도 넘치는 일이 없고 [樂而不淫], 슬퍼하면서도 상심하는 빛이 없으며 [哀而不傷], 원망하더라도 노여워하는 빛을 띠지 않아야 [怨而不怒]’ 한다는 유가의 예술관과 곧바로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좁게는 자신의 인격수양에서부터 넓게는 민간의 풍속교화에 이르는 시의 전래적 효용성을 말하는 것이면서, 특히 문학을 자기성찰의 도구로 삼아 심성 혹은 정서를 순화하는 데 그 효용가치가 있음을 강조한 사림과 문인들의 지향의식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다. 사림과 문인들이 보여준 이러한 인식은 특히 문학을 공명의 수단으로 삼고 문자적 기교를 희롱하던 기존문학의 극복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⁴³⁾

그러나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와 같은 사유와 정서에 기반을 둔 사림과 문인들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문화혁신의 도구였던 성리학적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경향을 띤다. 그리하여 문학의 독자성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로 일컬어지는 17세기 이후로부터 이러한 측면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싹트면서, 문학이라는 존재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43) 문이재도론을 포함한 조선중기 시학의 특징과 의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영주, 『한국 고전시가의 시학적 기반』, 『열린시조』 24호(열린시조사, 2002), 48~77면을 참조.

새롭게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 새로운 인식은 무엇보다도 생동하는 현실과 삶의 여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주제의식과, 생활언어에 바탕을 둔 표현방법의 혁신을 통해 구체화된다.

교산의 분방한 사유와 정서에 기반한 가치의식과 시적 지향의식은 그 자신이 이끌어 나간 삶의 투영이자 개성적 정감의 표출이다. 아울러 현실적 경험과 사고를 실감나게 표출하는 수단인 데 시의 효용가치가 있다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자각과 그 실천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가치의식과 시적 지향의식은 17세기 이후 한시와 우리말 시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이후 시가사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초석의 역할을 했다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낭중지추(囊中之錐), 즉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끝이 뾰족하여 곧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대중 속에 끼여 있어도 이내 그 재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말이다. 조선 중기, 유가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규범이 일상의 삶을 완강하게 틀지우던 시대에, 그 완강한 틀을 특유의 분방한 사유와 정서로써 깨뜨리며 우리 문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교산이 바로 이에 합당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산은 정치가나 소설가이기에 앞서 그가 생존하던 당대는 물론 누대에 걸쳐 명성이 자자했던 탁월한 시인이자 시론을 겸비한 시비평가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시화한 회대의 시인이었을 뿐 아니라, 작품 창작에 결부된 시정신과 작시이론 및 시비평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론가였으며, 우리나라 역대 시인들의 작품을 가려뽑아 시의 바람직한 전통과 계승에도 정

열을 쏟은 시안(詩眼)의 소유자였음을 기억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교산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당시로서는 파격을 넘어서서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지배층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은 당연했다. 그는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아인식과 강렬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자신대로의 확실한 자기인생을 살아간 문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의식과 지향의지의 저변에는 특유의 분방한 사유와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 어느 사대부 문인보다도 자신의 가치의식과 감정에 충실했으며, 그리하여 누구와도 쉽게 견주기 어려운 개성적인 시세계를 창출했다.

그의 시편들에 투영되어 있는 사유와 정서의 분방성은 무엇보다도 생활의 실제에서 우러나는 경험적 진실성이 배어 있기에 한층 절실한 감흥을 불러 일으키며, 욕망과 감정의 자유로운 발로를 통해 새로운 감수성을 추구한 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교산의 시와 시적 지향의식은 시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지향하며 지어지고 향유되어야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결부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문학의 존재성 및 효용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산의 시와 시적 지향의식은 그의 사후에 이어진 실학시대에 새롭게 빛을 발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양상으로 전개되며, 우리 시가사의 근대로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그의 시와 시적 지향의식은 우리 문학사의 근대를 예비하는 뚜렷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산의 시세계와 시론 및 시비평에 관한 논의는 그의 혁신사상을 지닌 정치가로서의 면모나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로서 주목되어 왔던 데 비해 여전히 미진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교산의 인간상과 시인으로서의 면모 및 시세계를 포괄적으

로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거점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고, 그 작품론적 실상과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KCS I

참고 문헌

1. 자료

- 『朝鮮王朝實錄』, 宣祖 31년(1598) 10월 13일.
徐居正, 『國譯 東文選』 I, 민족문화추진회, 1968.
安鼎福, 『國譯 順菴集』, 민족문화추진회, 1996.
柳夢寅, 『於于集』, 『韓國文集叢刊』 63, 민족문화추진회, 1993.
許筠, 『許筠全書』, 아세아문화사, 1983.

2. 저서 및 논문

- 김신중, 「허균의 시론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
김 영, 「중세 권위주의에 저항한 문인-교산 허균」,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8.
김진세, 「허균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89.
김태식, 「허균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박미선, 「허균 시학 연구-성수시화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992.
박영주, 「매월당 김시습의 문학세계」, 『반교어문연구』 제12집, 반교어문학회, 2000.
박영주,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징」,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박영주, 「한국 고전시가의 시학적 기반」, 『열린시조』 24호, 열린시조사, 2002.
안병학, 「허균의 시세계와 자아의식」, 『한국한문학회연구』 5집, 한국한문학회, 1981.
이동진, 「허균의 여유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6.
이이화, 『허균의 생각』, 뿌리깊은나무, 1980.
장정룡, 『허균과 강릉』, 강릉시, 1998.
전정덕, 「허균의 한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3.
조동일, 「허균」,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차용주, 『허균 연구』, 경인문화사, 1998.

최우영, 「허균의 시관과 비평양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7.
하미현, 「허균 시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999.
허경진, 「허균 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4.
허경진, 『평전 허균』, 평민사, 1984.

<투고일 : 2004.12.31. 심사일 : 2005.1.20. 심사완료일 : 2005.2.2>

K C I

Abstact

Thought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inspected in
Heo-Gyun's traditional chinese poetry

Park, Young-ju

Heo-Gyun(1569-1618) was a prominent literary man from the high class(Yangban) of Ch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find his human characteristics, poetic feature and literary meaning. This paper, therefore, has been to examine Heo-Gyun's characteristics in view of explaining best his life and specific features on his work in order to understand his thought and emotional freedom flowing under his complicate and unrestrained tendency of his literature.

Heo-Gyun had a truly firm self-consciousness and a strong identity more than other poets at the same period and he tried to express his consciousness about emotion. Therefore he created a unique world of poetry that was difficult to compare with any other. The thought and emotion on his poems, first of all, so implied by experimental truth from his real life that they revealed more realistically. By pursuing his desire and emotion freely, he showed the feature that was filled with the sensibilities. The new perception of his private poetry expended to the degree of essential and efficiency of the literature in normal life. Consequently, Heo-Gyun's new

trend as particular free thought and emotion broke the conservative system of Confucianism which made the routine life fixed strongly in the middle of Choseon Dynasty and founded a history of our modern literature.

K C I

Key words : thought, emotion, identity, desire, conventional morality,
self-consciousness, poetic inclination

KCS I